

재림하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벘후3:1-13

2010년 5월 21일, 최초의 인공 생명체 탄생, 사이언스 매거진

“500억 원을 들여 인공적으로 합성한 유전자를 이용해 ‘인공 합성 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은 마침내 세균(박테리아)을 창조했다.” 크레이그 벤터 박사

맞춤형 박테리아가 친환경 바이오 연료, 대기 중 탄소 제거, 효과적인 백신 생산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요술방망이

“아인슈타인의 발견 같은 인류사의 대단한 성과”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바이오테러 부를 것”... 오바마, 포괄적 검토 지시, 27일 청문회

인공생명체가 자연으로 퍼져나가면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다른 생명체와 결합해 치명적인 병균이 될 수도 있다. 테러리스트의 손에 넘어가 생물학 병기로 악용될 수도 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생명을 만들어 내는 시대

증산도 주장처럼 천지가 개벽하는 시대

마24,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 천사와 사람의 결합,

이제는 사람이 스스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 함.

베드로의 유언: 재림의 말씀을 기억하라

1절: 베드로전서와 후서, 주후 66년경, 죽을 때가 거의 이르렀을 때에 준 유언(벘후1:12-14)

사람은 자꾸 잊어버린다. 그래서 기억의 방식으로 생각을 일깨우려 한다.

기억한다는 것을 무엇을 들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2절: 기록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이 있다. 또 우리가 준 명령이 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신약성경 안에서만 무려 300번이 넘도록 예수님께서 영광과 심판의 주님으로서 다시 오실 것을 말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을 통해 그분께서 가장 빈번히 전하신 말씀이 바로 재림에 관한 것이었다.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올 것을 말씀하셨다(요14:3).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나타나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하였다(행1:11).

또한 사도들도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였다(빌3:20-21; 약5:7-8; 벘후1:16; 계1:7).

한편 교회의 두 가지 규례 중 하나인 주의 만찬 역시 그분의 오심을 증언한다(고전11:26).

구약의 대언자들: 주의 날의 심판(재림), 모세의 신명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아모스,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시편 기자들……

이처럼 신구약성경은 그분의 재림의 기대로 가득하다.

재림은 ‘그분이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확신의 대상이다.

재림의 기대 속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가? ★★★

재림의 시기의 징조

3-4절: 진화론자들의 등장

특징: 비웃는다, 중대한 진리를 가볍게 여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나 원숭이에게서 나왔다고 한다. 무에서 유가 나온다고 한다. 물질에서 나왔다고 한다. 신이 된다고 한다. 물질만능주의 자기 정욕대로 걷는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조지 왈드(하버드대 교수, 노벨상 수상자).

“생명의 기원에는 자발적인 발생 즉 진화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 둘 뿐이 없다. 진화론은 이미 거짓으로 다 탄로 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창조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으므로 진화라는 불가능을 믿기로 결심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이 버림 받은 생각에 내던지셨다(롬1:28).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롬8:7).

우리는 어떤가?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을 두고 사는가? 아니면 우리의 정욕대로 사는가? ★★★

주장의 핵심: 모든 것이 같은 비율로 꾸준히 변한다. 이 땅에는 격변이 없었다. 앞으로도 없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도 없다. 재림에는 격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5-6절: 그런데 이들은 이 땅에 있었던 몇 가지 격변을 일부러 생각하지 않는다.

첫째 이 땅과 하늘들은 영원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난 것이다.

약 6,0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이다.

창조 때에 첫째 날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빛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오나? 불가능하다.

둘째, 땅은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다(창1:2). 둘째 날에 궁차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었다. 셋째 날에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가 드러났다. 격변이 있었다.

셋째, 그런데 그때 있던 세상은 노아 당시의 홍수로 인해 물이 넘쳐 멸망하였다. 대격변이 있었다.

하늘의 창들(궁창 위의 물들)이 열렸다. 큰 깊음의 샘들(아래 물들)이 터져 나왔다. 대격변

베드로는 하나님이 과거에 말씀으로 이런 파워로 위엄으로 이 땅을 처리하셨음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신다.

노아가 120년 동안 외쳤으나 구원받은 자가 없다.

롯의 때와 같다고 하신다. 사위들이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7절: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하늘들과 땅을 불사르기 위해 보관해 두셨다.

누구를 없애려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 ★★★

재림의 시기의 징조들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막13:32).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 주는 몇 가지 근거: (1) 유대인들의 일부 회복 및 성전 건축 시도(마24:15-22), (2) 과학과 기술의 증가(단12:4), (3) 세상에 편재해 있는 진화론적 인본주의(벤험3:3-4), (4) 극도로 만연되어 있는 윤리와 도덕의 붕괴(딤후3:1-7), (5) 사회적 다원주의(약5:1-8).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하면 행17:26-27을 들 수 있다.

처음에 땅은 한 덩어리였다. 베게너의 대륙이동설 지도 참조, 관계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땅이 오대양 육대주로 나뉘었다(창10:25).

이와 동시에 창11장에서 사람들이 땅에서 나뉘었다.

창11:1, 6: 말이 하나, 언어가 하나, 백성이 하나, 이러면 나타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행17:26, 한 피, 한국사람, 미국 사람, 가나 사람, 유대인 모두 아담의 피

아담의 형상과 모양(창5:3), 모두 죄 덩어리

이들은 떨어져 살아야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데 말세의 징조는 하나님이 나누신 경계가 없어진다. 말이 하나가 된다. 물질만능주의

사람은 모이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인터넷, 지구촌

그러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바벨탑에서처럼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인다(19장).

천년왕국이 끝날 때도 또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한다(20장). 우리는 어떤가? ★★★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책임

8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다(시90:4).

하나님께는 이제까지의 6,000년 역사가 6일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 사람과 달리 시간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 그분은 허둥대지 않는다.

창조도 6일 만에, 이집트 탈출, 80년 간 모세를 훈련시킨다. 가나안 땅 전에 40년 유랑 생활

예수님: 4000년을 기다리신다. 성경 1611년에 완전하게 영어로 모든 사람의 언어로 주신다.

이 땅에도 이제야 성경을 주셨다. 이제야 바르게 교회를 하려는 사람들을 주셨다.

성실하게 우리 일을 하면서 기다린다. 그런데 영혼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모임에 힘써라).

9절: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신다(인류를 향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180도 돌아서야 한다.

구원받은 자들도 회개해야 한다. ★★★

11절: 모든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있어야 한다. ★★★

